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가?

지금은 모든 국가가 경제 대통령을 뽑는다.
나라마다 비즈니스 경쟁으로 급변하고 있다.
부동산 재벌 트럼프는 국익을 내세워 당선된 사람이다.
한 마디로 돈 잘 버는 사람이 나라 살림도 잘할 것으로 간주한다.
힘세고 돈 많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철왕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기부 천사다.
세계 재벌 빌 게이츠는 전 재산의 95%, 워런 버핏은 99% 사회환원을 선언했다.

이들은 악착같이 돈을 끌어모았다. 어찌 보면 부도덕하게 벌지 않고는 거부가 되기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인지 그들이 부를 이룬 다음에 필연적으로 찾는 것이 결국 인간성의 회복이다. 따라서 미국은 기부 문화가 체질화되었다. 그런 빨간 사과가 성숙한 사회로 변화시킨다. 국민은 그들을 존경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는 10위권까지 경제를 끌어 올렸다. 하지만 빨간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 사상누각이다. 경제 축보다 안보 축이라는 기둥이 너무 허술해서 수레가 기울어졌다. 아니 사회 기반이 무기력해서 수레가 점점 수렁으로 가라앉고 있다. 그 이유는 특히 학생들에게 지난 15년 동안 안보 교육이 크게 잘못되어왔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외국에 사는 교포는 안보 걱정이 태산인데 정작 국내에 사는 국민은 천하태평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실감 난다. 지금 국민의 안보 불감증이 큰 사회적 이슈다.

누구나 우리나라 정치를 칭찬하는 사람이 없다. 사색당파 싸움하던 조선 시대에서 한 발자국도 발전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국회 무용론이 공론화될 정도다.

국회 청문회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라를 위한 청문회인지 정권 교체를 위한 것인지, 인신공격이나 개인의 인기 수단으로 말 잔치를 하는 성토장인지 참 아리송하다.

몰아세우기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등 모르쇠 대답으로 일관한다.

청문회장에서 사실 규명도 하기 전에 국민의 이름으로 질책과 힐난으로 호통을 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벌처럼 쏘면 기름 장어처럼 빠져나간다고 불평이다. 그럼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는가?

인사청문회도 그렇다. 도덕적인 검증한답시고 난도질하면 수치와 망신만 당하고 줄줄이 탈락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4번이나 파산하고 3번 결혼했지만,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다. 그만큼 도덕성보다 사생활을 더 존중한다.

문제는 업무 수행 능력이나 비전을 검증해야 하는 것이 인선 기준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 국회는 항상 시끄럽다.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 태극기와 촛불로 서로 큰소리와 샷대질하다가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급한 민생 문제 처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자신의 소속정당 상정안 통과와 거래를 하는 한심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은 국민의 대변자다. 그들의 잘못은 우리의 잘못이나 다름없다. 어려움을 함께 고쳐나가며 이겨내야 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시민이어야 한다. 탄핵하고 해야시키는 풍토는 투표권 행사의 결과를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십상이다.

지금 박 대통령 국회 탄핵 정국으로 정부와 국회, 언론과 국민, 태극기와 촛불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사자가 풀숲에서 자세를 낮추고 살금살금 기어오는 줄도 모르고 두 마리 사슴이 서로 뿔을 맞대고 정신 없이 싸우다가 사자에게 목덜미를 물려 그 자리에서 죽는 광경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눈을 들어 주변을 살피자.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인조의 항복으로 60십만 명의 백성이 청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삼학사는 처형당했다. 그리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볼모로 잡혀간 굴욕의 역사를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다.

임진왜란 때 선조는 의주로 몽진했다. 이순신 장군은 공을 세우고도 모함을 당해 옥고를 치르고 2번이나 백의종군 당했을 때 조정에서는 당쟁만 일삼고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지 않았는가?

우리는 일제 36년의 식민지 생활과 6. 25의 참상을 벌써 잊고 있던 말인가?

우리는 북방 오랑캐의 자질구레한 침범까지 합하면 무려 930회 외침을 당했다. 그러나 전쟁다운 전쟁은 50번 정도라고 한다.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고 지정학적으로 북방과 남방에서 계속 노략질을 당해왔다.

지금 우리에게 월남과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경종이 울리고 있다. 북은 빈틈없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나라 없는 설움을 아는가?

보트 피플이 되고 수많은 지도자와 지식인, 종교인이 학살당하는 역사적 현장은 새삼스럽게 나라의 고마움을 상기시켜 준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보 우선의 생존권을 너와 내가 함께 지키자.

방어무기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 앉아서 핵 주먹을 맞고 죽으란 말인가? 소수 야당 국회의원이나 촛불 세력이 중국을 자극하면 경제적으로 국익에 불리하다는 구실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론은 황당할 뿐이다. 그것은 분명히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이 아닌가? 왜 북한 정권이 손뼉 치며 좋아하는 소리만 골라서 할까? 남북은 대치 중이고 전쟁 중이다. 국민 여론이 안보 문제로 싸우면, 과연 이런 혼란 상황에서 세계 어느 국가가 우리나라에 투자와 무역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미군은 철수하지 않았고 트럼프는 아직 우리 편이다. 트럼프는 상호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때를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조국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촛불의 배후는 단순한 국정농단이 목표가 아니다. 그걸 지렛대로 삼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혜안을 가지기 바란다.

나라를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태극기를 들 것인가, 촛불을 들 것인가?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선택이 아니라 필연과 당위의 문제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싶다.

미국 라구나우즈에서 — 고영주 — Dec 31, 2016